

RESEARCH ARTICL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Focusing on Educ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Kim, Jungyoon¹ · Seo, Eunsook²

¹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ulticultural Studies, Dongguk University

²Professor, Dharma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ulticultural Studies, Dongguk University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과정 현황 및 개선방향: 국내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김정윤¹, 서은숙²

¹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 ²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협동) 교수

Corresponding Author: Seo, Eunsook (ses87@dongguk.edu)



OPEN ACCESS

Citation: Kim, Jungyoon & Seo, Eunsook.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Focusing on Educ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2, 137-145.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40019>

Received: December 20, 2024

Revised: December 24, 2024

Accepted: December 31, 2024

Copyright: © 2024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a for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It aims to propos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ir multicultural competencies.

Methods: By analyzing data from 10 education universities in 2024, the study investigates course offerings, their classification as mandatory or elective, and their content focus.

Results: Multicultural education is primarily offered as elective and theory-based courses, with limited practical components. Regional disparities were identified, with rural universities integrating multicultural education into major subjects, unlike their urban counterparts.

Conclusion: Incorporating multicultural elements into mandatory courses, such as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is crucial for equipping pre-service teachers with the necessary skills to thr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Multi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in Teacher Education Universities, Multicultural Sensitivity,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Multicultural Education

I. 서론

1. 한국의 다문화 국가 도래

한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4년 1,797,618명에서 시작하여 2023년 2,507,5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되어, 같은 해 4월 기준으로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285,153명(행정안전부, 2024)이며, 이 중 체류 외국인은 2,602,669명(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19)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7%에 해당한다.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보고서(2020; 2021)에서는 외국인 비율 증가가 사회 통합, 노동 시장, 국가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한 정책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 비율이 일정 수준(5% 이상)에 도달하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은 다문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단기간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전통적인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Timothy Lim, 2017).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고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는 성별, 연령, 직업,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이러한 다양성 중에서도 특히 문화적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성이 확대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¹⁾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3년에는 18만 1천 명을 초과하였다. 그 중 초등학생이 전체 다문화 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03,881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5,639명에 이르렀다(한국개발원, 2023; 교육부, 2023: 2).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다문화 교육이 다른 학령 단계보다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문제를 초래했다. 학교 교육이나 사회적 시스템에서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주민과의 공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는 크게 학력 격차, 학교 적응, 학교폭력 세 가지로 나뉜다(교육부, 2023).

첫째, 학력 격차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언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사용하는 제한된 언어 환경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교화된 언어(elaborated code)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는 번스타인이 제시한 언어적 격차 이론과 일치하며, 이러한 격차가 학업 성취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Basil Bernstein, 1971).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둘째, 학교 적응 문제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015년(4.53)과 2018년(4.33)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학교 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 공부 어려워서(56.2%)’,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55.4%)’가 꼽혔으며, 이는 학업 문제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과 정서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다문화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은 다문화 학생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비율은 2.3%로, 전체 학생 평균(1.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피해 유형으로는 집단 따돌림(49.1%)과 협박·따돌림(49.1%)이 가장 많아,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학교 내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1) 다문화 학생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칭하며, 이 범주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중도입국)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학력 격차, 학교 적응,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개별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다문화 교육과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사 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문화 교사 교육은 교사들에게 다문화 학생들과의 소통 능력,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학생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는 거시적으로 사회 전체가 다문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대중의 미성숙한 반응과 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학생들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다문화적 감수성 부족을 시사한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학력 격차, 학교 적응,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거시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다문화적 준비 부족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반영하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다문화적 감수성과 이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다문화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문화적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며,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다문화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함양하여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사회 전반의 포용적 문화 형성과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 구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초등학교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려면, 청소년기부터 다문화 감수성과 포용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준비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문화 교육의 시작점은 청소년과 성인 간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다. 청소년은 다문화 수용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다문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성인은 2015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며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수용 태도가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4 : 21-22). 이는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융합하기 쉬운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정된 사고방식과 경험 때문에 다문화 교육의 효과가 감소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다문화 감수성과 포용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도 다문화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연계적 접근이 중요하며,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다문화적 가치를 처음으로 접하고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시점으로 간주된다. 이 시기의 교육은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감수성과 태도를 배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연계적 다문화 교육은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된다. 학생들은 각 학년을 거치면서 다문화적 사고와 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게 되며, 성인이 되었을 때 다문화 사회에서 적응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연계적 교육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영희, 2016).

그러나 연계적 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사들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현재 교사들 중 예비 교사 시절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감수성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의 질과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다문화 교사 교육이 필수적이다. 다문화 교사 교육은 단순히 교사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평등과 공존을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화적, 언어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교사가 주류집단 출신이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족적, 문화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내용에 대한 낮은 흥미, 따돌림이나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학교에서의 성취 불균형과 문화적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점차 하락하고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

다. 초등교육은 '어린이 중심'의 문화 호응적 교육이, 중등교육은 '내용 중심'의 교육이 요구되므로, 이에 맞는 차별화된 다문화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전희옥, 2012: 125-126). 따라서, 다문화적 감수성과 전문성은 교사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량이다(Chen, 1997).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처음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사는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과 감수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다문화적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내 교육대학교에서 다문화 교육과정은 주로 선택 과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다문화 교육과정은 주로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모경환, 2009; 모경환, 이해진, 임정수, 2010). 이러한 교육과정의 부족은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경환(2009)은 한국의 다문화 교사 교육이 이론 중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모경환 외(2010)는 다문화 교육과정이 실습과 현장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배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예비교사 양성 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교에서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과정의 현황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교육과정의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감수성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 교사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내 소외 문제를 해결하며, 학업 성취 불균형을 완화하고,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 능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초등학교 시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초등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이 핵심적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넘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특정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문화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과 2010년, 한국의 모든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교육과정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모경환, 2009; 모경환, 이해진, 임정수, 2010)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다문화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적인 분석을 제공했다. 이들 연구는 다문화 교사 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을 정립하는 데 주력했지만, 현재의 교육적 요구와 변화한 다문화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2024년 현재, 다문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전체 다문화 학생 중 약 64%를 차지하는 학령 단계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교육부, 2023).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형성하고 다문화적 사고를 처음 접하는 중요한 단계로, 이 시기의 교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24년에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현황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교사 교육은 단순히 개념적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다문화 학생들의 실질적인 적응과 학업 성취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더욱 전문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비교사들은 다문화적 관점을 반영한 교수 전략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다문화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의 선행 연구 이후 다문화 학생의 수와 이들의 교육적 요구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변화한 사회적 환경과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현황 파악은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대학교에서 제공되는 다문화 교육 과목의 개설 현황과 강좌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감수성과 역량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교육대학교 다문화 교육과정 실태

1. 연구 대상 및 방법

2024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교육과학기술부, 2024)에 따르면, 국내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는 총 10개교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등 10개 교육대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2024년도에 개설된 다문화 교육 관련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교과목’은 교과목명 또는 교과목 해설에 ‘문화’, ‘문화의 다양성’, ‘다문화’ 등의 용어가 포함된 강좌로 정의하였다. 자료 수집은 1차적으로 각 교육대학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과목 해설 및 세부 내용은 전화 조사로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문화 교육 관련 교과목의 개설 수, 이수구분(필수/선택), 학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내 다문화 교육의 비중과 구성을 평가하고, 현재 교육과정의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예비 초등교사들의 다문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내 교육대학교 다문화 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교육대학교 10개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표1> 2024년도 국내 교육대학교 다문화 교육 과목 개설 현황과 같다. 다만, 다문화 교육 과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게 되어, 교직소양 과목도 함께 조사하게 되었다.

<표1> 2024년도 국내 교육대학교 다문화 교육 과목 개설 현황

순번	학교명	과목명(학점)		과목 해설 외부 공개 여부
1	서울교육대	교양과정	1) 언어생활의 관찰과 이해 (2학점) 2) 현대사회와 글로벌 세계 (2학점) 3) 세계시민으로 지구적 상상하기 (2학점)	공개
		전공과정	1) 다문화·정보통신 윤리와 도덕교육-윤리교육과 (2학점) 2) 다문화사회와 초등교육-초등교육과 (2학점)	
2	부산교육대	교양과정	1) 생활영어-1학기 (3학점) 2) 생활영어, 영어연습, 일어, 중국어-2학기 (3학점) 3) 다문화와 한국어 교육 (3학점)	비공개
		전공과정	1) 다문화시대와 시민교육 (1학점) 2) 다문화사회와 글로벌이슈 (2학점)	
3	대구교육대	교양과정	1) 다문화시대와 시민교육 (1학점) 2) 다문화사회와 글로벌이슈 (2학점)	공개
		전공과정	1) 지속발전교육 실과교육과 (2학점) 2) 초등학교상담-교육학 (2학점)	
4	경인교육대	교양과정	1) 창의역량-창의 (1) 창의역량 II ① 다문화 사회의 이슈와 시민성-사회과교육과 (2학점) (2) 경인중점 ① 경인중점 다문화 사회와 문화다양성 교육-대학 특성화 과목 (2학점)	공개
		전공과정	1) 다문화사회와 교육 (2학점) * 교양 선택 3개 영역(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술) 중 2개 영역을 선택하여 이수 (AI융합교육 영역 필수 이수)	
5	광주교육대	교양과정	1) 융합역량(다문화교육의 이해 등) (2학점)	비공개
6	공주교육대	교양과정	1) 다문화와 세계시민교육 (1학점)	비공개
7	전주교육대	전공과정	1)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사회교육과 (1학점)	

8	진주교육대	교양과정	1) 다문화사회윤리 (2학점) 2) 다문화와 통일교육 (2학점)	비공개
		전공과정	1) 다문화교육론-사회과교육 (2학점) 2) 다문화와 교육-교육학 (2학점)	
9	춘천교육대	교양과정	1) 다문화사회와 교육 (2학점)	공개
		전공과정	1) 다문화수학-창의적체험활동 (2학점) 2) 문화다양성교육의 관점과 실제-사회과교육 (2학점)	
10	청주교육대	교양과정	1) 다문화의 이해 (3학점) 2) 다양성과 세계시민교육 (3학점)	비공개

<표1>과 같이 국내 교육대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 교육과정에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국내 교육대학교의 다문화 관련 교과목은 대부분 교양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교과목 편성 방식은 예비교사가 해당 과목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다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초등학교 교사가 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진다.

또한 예비교사는 다문화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능력과 교육 개혁을 위한 실천적 역량을 배양하며, 반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고 교육 제도 개혁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전희옥, 2012: 126).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선택과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예비교사들이 이를 필수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교육대학교의 다문화 교육과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불충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교사들에게 다문화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다문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사 양성 체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둘째, 다문화 교육이 디지털 교육, AI 교육과 같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과 AI의 등장에 따라 디지털 교육과 AI 융합교육은 이미 교직소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맞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교육대학교는 교직소양 과목 외에도 교양과정에서 AI 융합교육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남아 있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하며, 다문화 사회로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공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과목의 개설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조사 대상 10개 교육대학교 중 절반인 5개교에서만 다문화 교육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들 과목은 주로 윤리교육과, 초등교육과, 실과교육과, 교육학과, 사회교육과 등 일부 학과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개설 상황은 다문화 교육이 교직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나아가 다문화 교육이 특정 전공에만 집중되고 전체 교직과정에서 균등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은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적 역량을 고르게 함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서울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의 다문화 교육 과목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각 대학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교대는 이론 중심의 강의를 주로 운영하는 반면, 진주교대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습 중심의 강좌를 포함하고 있다. 진주교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대학교가 다문화 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비교사들이 지역 특성에 맞춘 다문화적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정책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구교대는 광역시와 농어촌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위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적 접근과 농어촌적 접근이 혼합된 교육과정 운영 경향을 보인다. 이는 광역시 특유의 문화적 다양성과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문화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교육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구교대가 도시와 농어촌의 중간적 특성을 지닌 지역에 위치한 교육대학교로서, 예비교사들에게 다양한 지역적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다문화적 교수법을 익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다문화 교육 과정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되, 예비교사의 다문화 역량 함양이라는 보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 과목의 전공 과정 확대는 물론, 지역별 특성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

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개설된 다문화 교육 과목의 내용이 기본적인 이론적 이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다문화 교육 과목은 다문화 개념과 기초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과거 연구에서도 지적된 문제이다. 모경환(2009; 2010)의 2009년과 2010년 교육대학교의 다문화 교육 과목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좌는 주로 다문화 교육 개론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교수-학습 방법, 상담과 지도와 같은 기본 내용만을 포함했다. 일부 강좌는 멘토링 실습과 연계되었으나, 실습이 보강적으로 다뤄졌을 뿐 심화된 실천 내용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또한, 강의 내용 중에는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의복 등 다문화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혼란이 존재했다.

2024년도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법과 사례 기반의 실천 전략,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내용이 부족한 점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한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 단순한 이론적 학습을 넘어, 예비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교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화된 내용과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발전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다문화 교육 과목의 학점 편성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현재 개설된 대부분의 다문화 교육 과목은 과목 수 자체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2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편성은 한 학기 동안의 교육만으로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교육 역량을 충분히 함양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론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심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학점과 교육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론적 개념만을 개괄적으로 다루는 수준에 머물게 되며, 이는 예비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주목할 점은,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의 교육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교수법,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 그리고 다문화적 포용성을 촉진하는 활동 설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학점 구조에서는 이러한 심화된 내용과 실습 중심 교육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결국, 현재의 다문화 교육 교과목 개설 현황과 내용은 예비교사들에게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이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거나 그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투입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을 간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2024년 기준,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서 정착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 10개 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교육이 주로 교양 선택 과목으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공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좌가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비교사의 실천적 역량 배양에 한계를 보였고, 대부분의 과목이 2학점으로 제한되어 심화된 학습과 실천 중심의 교육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대학교 간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와 현황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분석을 넘어 실제 강의 운영 방식과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의 참관, 교수자 심층 면담,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육 과목이 예비교사의 다문화 역량 함양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특히 교양 선택 과목의 경우, 과목명만으로 다문화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강의 내용과 교수법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각 교육대학교의 지정학적 특성과 다문화 교육과정 간의 연관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와 같은 교육대학교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교육을 전공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서울교대나 부산교대와 같은 대도시 교육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다문화 교육 비중이 낮다. 따라서 지역별로 다문화 교육 과정을 차별화하여,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는 이민자 유입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형성했으며, 공교육과 교사 양성 과정에서 다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 존중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다문화 교육과 교사 양성 체계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과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넷째, 현재 교육대학교에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선택 과목으로 제한되고, 심화된 다문화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강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 교직소양 과목인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에 다문화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내 모든 교육대학교에서는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필수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로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은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에 다문화 교육 요소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적 선택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예비 교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방향이다. 상담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적 적응을 지원하며, 교사가 학생과 부모를 연결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교와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교사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학생들에게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다문화 감수성과 포용성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결국,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에 다문화적 요소를 통합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실현하고, 다문화교육을 통해 상담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상호보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예비 교사들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상담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교육대학교의 다문화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나, 지역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교육대학교의 특성과 지정학적 맥락을 고려한 심층적 분석, 다문화 교육과정 도입의 역사적 배경 조사, 선택 과목 운영 방식의 효과 평가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실천적 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교육대학교의 다문화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등 예비교사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기준, 국내 10개 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교육 과목은 주로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예비교사의 실천적 역량을 충분히 배양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 교육대학교는 전공 과정에 다문화 교육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도시 지역 교육대학교는 교양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강의 운영 방식과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필수 교직소양 과목인 “생활지도 및 상담”에 다문화적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상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향은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적 적응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초등학교 예비교사, 교육대학교의 다문화 교육과정,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상담 역량, 다문화 교육

사사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C2A 04092485).

참고문헌

- 강인구(2024). 교사의 다문화 교육 준비도와 교육과정의 공정성 및 문화적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인식의 관계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49,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05-130.
- 경인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목 개요 파일.
- 고은영 외 3명(2013). 다문화 교육대상의 정의와 다문화 효능감 연구: 예비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0, 99-119.
- 공주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목 개요 파일.
- 광주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목 개요 파일.
- 교육부(2023).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 교육부(2024). 2024년 교원양성기관 현황(‘24년 5월 기준).
- 김강, 방기혁(2020).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교육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125-144.
- 대구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목 개요 파일.
- 모경환(2009). 다문화 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245-270.
- 모경환, 이혜진, 임정수(2010). 다문화 교사 교육과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 2010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제* 1(1), 21-3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4월호, 1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b).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1-22.
- 부산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 서울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목 개요 파일.
- 전주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목 개요 파일.
- 전희옥(2012). 미국 교사 교육 기관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사례분석-Washington대학교와 George Mason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제* 19(4), 한국사회교육학회, 121-142.
- 지영희(201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주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 청주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목 개요 파일.
- 춘천교육대학교(2024). 교육과정 편제표, 교과목 개요 파일.
- 한국개발원(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 OECD (2020). Diversity in OECD countries: Population diversity, labour market inclusion and acceptance of diversity, in *All Hands In? Making Diversity Work for All*.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21). Executive summary, in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1*. OECD Publishing, Paris.
- Bernstein, B.(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hen, G. M.(1997). A review of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Human Communication*, 1(1), 1-16.
- Timothy Lim(2017). *The Road to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town University.
- 행정안전부(202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4년 4월 기준). <<https://jumin.mois.go.kr/index.jsp#>>.